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신명기 6:5, 마태복음 6:33

정윤돈 목사님

* **신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마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키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 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일 년 동안 성도 혹은 복음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기문과 교단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참된 집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 주셨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이다. 세계사를 봐도 여러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이 다 복을 받았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했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했지만 결국 응답을 받았다. 2025년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모든 응답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다. 2024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응답받은 부분도 많았지만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많고 어려울수록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들의 문제와 관계없이 문제를 뛰어넘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문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문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한다. 그 방법이 뭘까?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빛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문제가 큰 축복의 발판이 되어있음을 알게 된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문제가 내게 재앙과 저주가 될 수 있다.

본론

오늘 송구영신예배에서는 2025년도에 우리들에 집중해야 할 세 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미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세 가지 집중은 2025년도 우리 참사랑교회의 표어인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이다. 복음집중은 결국 전도하지는 말이다. 그래서 복음집중은 전도집중이고 말씀집중은 치유집중이다. 말씀에 집중할 때 틀린 생각이 치유

되고 상처와 영혼과 현장까지 치유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다.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땀이 보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받게 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비추거나 재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 흑암, 공허가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역사와 성경으로 답을 주셨다. 그런데 왜 갈등할까? 왜 혼돈, 흑암, 공허 속에서 오히려 미워할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이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사람에 대해 모르면 사람이 뼈딱해지고 교만해진다. 오히려 정말 말씀을 알고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세상과 사람과 관계를 알면 겸허해진다. 참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 먼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고 있다. 왜 교리가 중요할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단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호와증인과 신천지다.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진리를 찾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 정립된 칼빈 신학, 루터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유산으로 전달되었다. 그 신학이 지금 장로교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족보라고 볼 수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이해하려면 최초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의 신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야 한다. ① 첫째로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강조하며,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시 했다. 천주교가 행위를 강조하고 교회에서 신부가 구원을 준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경으로 돌아간 게 루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찬에 대해 공제설(일체화)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칼빈은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이야기했다. 쾰빙글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 의미라고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리된 개혁주의 신학이 전달되었다. ② 두 번째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며,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선택을 중시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루터는 천주교에 반해 믿음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은혜라고 주장했다. 믿음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을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언변이나 설득, 논리로 인한 게 아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③ 세 번째로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주권, 언약신학,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한다. 이 신학은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론을 중시하며, 교회 정치에서는 장로 제도를 채택한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일까? 그건 아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장로교라는 교회 정치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④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며, 특히 교회 정치체제로서의 장로 제도를 강조한다. 이는 교회의 의사결정이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로, 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중시하는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교회운영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뭘까? 당시에는 왕이 교회의 주권을 임명하는 식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있지 않았다. 왕들은 교회를 손아귀에 집어넣으려 전쟁까지도 불사했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렸고, 교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장로교제도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지킨 제도다.

(2)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따르게 되어있다. ① 먼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5대 교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 기반으로 풀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천 번 이상 모여 영국교회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모여서 만든 신앙고백서이다. 현재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표준 신앙고백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구원의 교리를 강조한다. 이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요소와 일치한다. 이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교회 정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며, 목사와 장로의 역할, 노회와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신앙고백서 안에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 노회와 총회의 중요성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멋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3백 년 전에 만들어놓은 신앙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웨스트민

스터 신양고백서는 대요리문답 196개, 소요리문답 107개가 있다. 대요리문답은 목회자와 지도자들, 소요리문답은 새가족과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 우리 시간표는 성경을 번역하거나 교리를 정립하는 시간표가 아니다. 복음을 확립해서 전도, 선교해야 하는 시간표다. 초기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시간표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응답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게 되어 참 행복을 누리야 한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설립 시 웨스트민스터 신양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이 신양고백서를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양고백서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장로교회의 교리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이 신양고백서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루터,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양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적 교리적인 정체성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와 같은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총회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일까? 교리를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해야 할까? 그 이유는 현재 초기 개혁주의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랐던 유럽과 세계와 한국교회들이 교리와 제도만을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를 상실해 버렸고 그래서 참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다. 이미 유럽 교회는 다 문단였다. 정확한 복음과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정죄하기만 바쁘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다 정치꾼들이다. 장로교에 복음 없으면 목사들이 다 정치꾼 된다. 조금 잘 한다는 분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빠진다. 우리가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2. 2025년 우리 참사랑교회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3가지 집중을 통하여 먼저 우리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237나라 5천 종족, 즉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다.

(1) 이를 위한 첫 번째 집중은 '복음집중'이다. '복음 집중'을 위해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미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①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② '십자가의 도'에 나오는 복음요절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란다. 제가 채탕방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구원의 길(Cross Logos), 십자가 메시지를 올려드린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은 십자가 메시지다. 그 안에 50개 내지 100개 요절이 있다. 제가 강해도 올려드리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강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 10초 만에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된 사람은 바로 영접시키면 된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③ 그래서 다시 300영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300영접을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30다락방과 3지교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운동이 다락방이다. 그 안에서 진짜 제자가 나온다. 제자가 나오면 성공이다.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성공이다. 문제는 제자를 만들고 전도 못 하는 목사다. 신학교도 전도를 해보고 가야 한다. 당연하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 전도할 때 나를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전도대상자다. 저는 율법적이어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다 살려야 되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전도하다보니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2) 두 번째로 '말씀집중'을 위해서 도전해야 할 미션이다. ①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구약 39권은 929장이고, 신약 27권은 260장으로 합해서 모두 1189장이다. 하루 5장씩 읽으면 238일로 8개월 정도가 걸리고 하루 10장씩 읽으면 119일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② 또 성경 쓰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램넌트들은 영어성경과 일본어성경 중국어성경 읽기, 듣기, 쓰기를 해보시기 바란다. 캘리그래피와 서예를 통해서도 써 보시기 바란다. ③ 또 성경 66권을 읽을 때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란다. 저도 주일 강단메시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고백한다. 만

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느낄 때 반석같은 신앙과 누리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은 속제가 아니다. 말씀의 맛이 있다. 말씀의 맛, 전도의 맛을 보시기 바란다.

(3)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집중'을 위해 우리들이 도전하고 기도해야 할 미션이다. 땅끝 증인이란, 세계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① 우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도전하고, 결국에는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237나라에 어떻게 갈까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본다. 이제는 모든 언어로 준비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니기라도 하셔야. 하나님은 마음을 먹을 때 문을 열어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도 원단메시지에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할 때 끝이 오리라 하셨다.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 바란다. 이 말씀들에서 보면 '땅끝복음화'를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 '온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그래서 우리는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땅끝'이 땅끝으로 가야 선교일까? ③ 여러분의 땅끝을 발견하셔야 한다. 나의 땅끝은 나의 선교지를 의미한다. 나의 땅끝은 나의 선교사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나의 땅끝이 가정일 수도 있다. 나의 땅끝이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 300% 현장일 수도 있다. 나의 땅끝이 나의 정신문제, 영적문제, 중독문제일 수도 있다. 나의 땅끝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와 후대 램넌트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세운 램넌트 후대가 세계를 살린다면 내가 땅끝을 살린 것이다.

결론

2025년도 실천목표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았다.

<2025년 실천목표 기도문>

- ①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②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70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③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7지 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W.I.O 협동조합, 치유시스템 구축, 예제능 협동조합, 고품화 시대준비, 참사랑 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 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 핵심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 ④ 전 성도가 나의 나라,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를 정하여 진정한 선교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 ⑤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⑥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⑦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⑧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⑨ 300캠프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 ⑩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⑪ 70나라에 병원, 약국 등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끝으로 2025년도 한 해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의 3가지의 영적인 집중을 통하여 개인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과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내년도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록한 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되어 해답을 얻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